

넘쳐나는 색의 폭력과 야만성

대중문화 속에 형상화된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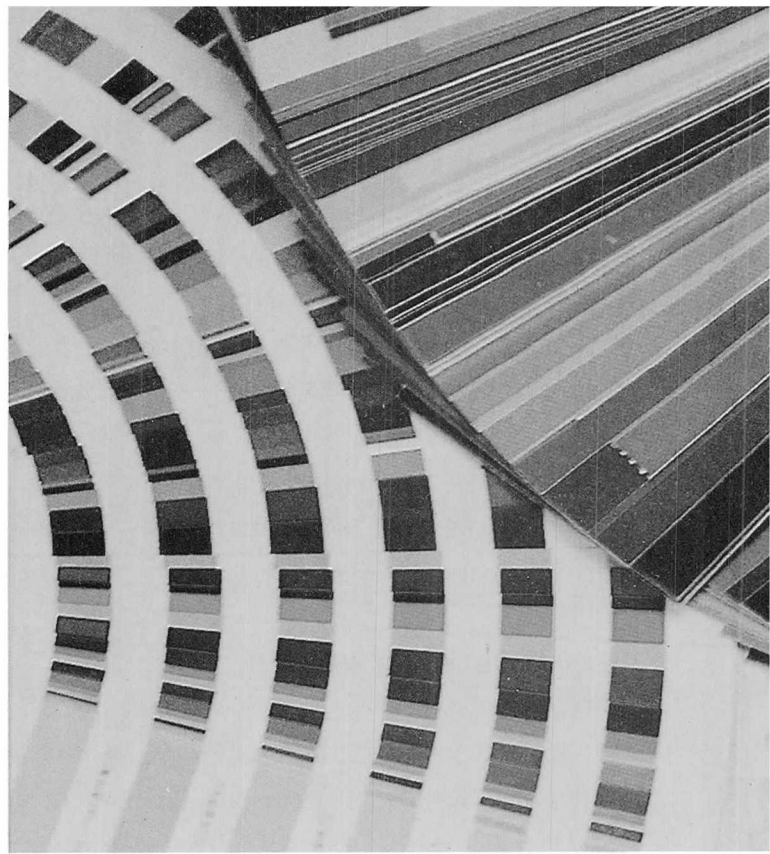
정진국 | 미술평론가

현대 한국의 색채는 우리가 수용할 만큼의 정서적 한계를 뛰어넘어 폭력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것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전통 색채와 단절되고 서양 색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다. 이제는 더 이상 공해가 아닌 환경친화적인 색채를 복원해야 할 때다.

색에 대해서라면 이야기할 것보다는 우선 고발해야 할 것들이 더 많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시급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아주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어느 사거리에 이르러 교차로 신호등을 기다려야 했는데, 전방의 시뻘 짙고 거대한 네온 간판 때문에 신호등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치 사고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했던 그 간판은 더구나 약국 간판이었다. 이런 사정은 오늘날 대도시 어디에서나 크게 다르지 않다. 점점 더 거칠고 공격적인 색채들이 이제는 공공질서를 좀먹어 들어오는 정도를 넘어서, 극히 위험천만한 사건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른 것이다.

색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식으로든지 정서를 순화하고, 미적 즐거움을 향유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먼 옛날의 구호처럼 됐다. 색은 오늘날, 파괴적인 전대미문의 야만성을 드러내고 또 과시하고 있다. 색은 도처에서 넘쳐나면서, 우리의 눈이 수용할 수 있는 정서적 한계를 훌쩍 넘어선 듯하다. 차라리 신경증을 유발할 지경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색은 즐거움과 경이와 구경거리가 아니라, 괴로움과 충격과 엄청난 공해처럼 다가온다.

색은 정신보다는 감각에, 이성보다는 감정에 호소한다. 계산과 합리적 판단보다는, 흥분과 즉흥적 판단을 유도한다. 거리에, 언론에, 공공적 의사소통의 장치에 선정적인 색들이 난무한다는 것은 절제보다는 과시가 앞서고, 냉정함보다는 격렬함이 앞서는 현대인들의 기질을 웅변하는 것일 것이다. 흔히 한국의 현대사를 그 역동성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는데, 바로 그런 역동적 기질이 다른 한편으로는 자충우돌하는 색의 남용에서 극적으로 드러나는 듯하다.



전통적 색에 대한 편견으로 현대의 색에 대응 못해

어쨌든 색은 우리 사회에서 방치되고 소외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미술가들—화가, 조각가, 디자이너 등—이 색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생산하는 주체라고 한다면, 이들이 색을 중요하고 진지한 주제로 다룬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색은 심미성을 추구하기 위한 순수한 수단이자 목적이었지, 그 자체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대상은 되지 못했다. 색은 이들에게 단지 '예술'이나 '작품'을 창작하는 데 동원되는 스타일과 기교의 한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했는지 모른다.

한편 색이 그 자체로서 적극적이며 과학적으로 다뤄져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지 못했던 이런 경향은 뿌리 깊은 편견에 기대고 있다. 문인화가 주류를 이룬 전통회화나 혹은 한국성을 표방한 현대회화에서도 한국적인 정서는 번번히 그리고 암암리에 무채색조의 것으로 간주됐다. 이를테면, 한지라든가 분청사기, 백자 등에서 민족 정서나 미감의 요체를 찾았다는 듯이 주장하는 입장들이 널리 퍼져 있듯이 말이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채로 구사된 이미지는 어딘가 격조나 품위 혹은 좀더 고상한 세계의 이미지에서는 기피해야 할 것처럼 치부됐다. 아무튼 절제의 미학을 내세운 그같은 논리와 감수성이 오랫동안 미술가들의 기질과 취미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이다. 색을 다루던 장인들의 전통이 상당히 무시돼왔다는 것은 오늘날 색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거의 없었음을 말해준다.

예컨대, 서구 현대미술의 불가피한 수용과정에서, '팝 아트'의 미국식 발달한 재치로서 색의 가치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단지 요란하고 공허한 아양에 불과한 것이 될 뿐이었다.

색의 자동화, 합리화, 대량생산화로만 치달아

현대 디자인 혁명은, 장인적 가치의 재해석이자 그 자동화, 합리화, 대량 생산화를 위한 모델의 개발이었다. 생활 문화를 지배하는 모든 물건에 색을 입히는 일은 그러나 우리의 경우 자동화, 합리화, 대량생산화의 측면만 강조했을 뿐이다. 장인적 솜씨와 그 섬세한 취미에 대한 재해석은 생산의 수익 논리와 효율에 떠밀려 거의 관심거리조차 되지 못했다. 그 사이 대중적 소비 주체들은 경쟁력이 없는 전통적 색에 대한 취미에서 멀어져 일방적으로 강요된 산업적 생산물의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바가지 하나를 보더라도 그 점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나 급격한 현대화 과정에서, 오늘날과 같이 거의 폭력적으로 거침없이 색을 사용하고 미술관 속의 미술과 거리의 미술 사이에 괴리된 현상뿐만 아니라 대중이 색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쌓을 기회 또한 거의 전무했다. 모든 서구에서 수입된 색이 현대적인 색의 대명사처럼 됐다. 건물과 주택과 승용차와 사람들의 옷차림과 장신구 등 모든 현대생활 요소들 가운데 전통적이며 고유한 색감을 적용하는 것은 생각할 틈조차 없었다.

새마을운동이 벌어졌던 농촌에서는 초가지붕이 급격하게 슬레이트화되고 그 색은 화려한 원색으로 칠해졌다. 청바지와 티셔츠와 더불어 시작된 우리 옷차림의 변화는 갈수록 알록달록해져갔다. 우리의 현대는 색에 관한 한 특이한 원시성에서 출발했다. 여인의 화장에서, 각종 천연색 인쇄물에서, 텔레비전과 영화에서 그리고 물론 그 흔한 사우나탕들과 전철역의 각종 벽화와 가정의 실내를 꾸민 장식물들과 식기에서도 색은 풍토와 토양과는 유리된 어색한 빛깔을 뽐내고 있었다.

사실, 오늘날 고급예술로서 순수미술은 미술관 속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일반대중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다. 때때로 거리로 뛰쳐나온 공공조각이나 기념상 혹은 행위예술 등은 색채보다는 형태에 비중을 두게 마련이며, 색을 일차적인 메시지 전달의 표현수단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광고가 주도하는 상업예술의 세계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선을 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선 시되기 때문에 당연히 '색을 쓰게' 마련이다.

전통예술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 지역의 고유성, 향토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자연스레 그 지역 환경과의 친화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색이란, 거의 언제나 어울리고 조화로운 색채 속에서 작용한다고 할 때, 전통예술에서 색은 친근하고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다가온다. 동양화는 물론 사실적인 서양화에서조차, 아무리 강렬한 색채가 사용된다 하더라도 눈에 거슬리거나 어떤 도발을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우리 곁에 그렇게 서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색동저고리나 단청처럼 색채가 아무리 원색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오랜 습관과 풍속 속에 녹아들어, 마치 신록이나 단풍을 마주하

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색 때문에 특별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결국 환경친화적인 색채가 별도로 있다고 하기보다는, 전통적인 색조가 곧 환경친화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색조가 자연색에 가깝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색은 형태와 마찬가지로 문화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누적되면서 타고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색채가 미묘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지만 미술과 디자인에서 사용되는 현대의 재료들은 이런 미묘함을 무시하도록 한다. 아크릴과 페인트와 각종 화학적 안료와 염료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은, 진정 친숙한 맛과 맛의 미묘한 차이를 허물어뜨린다. 따라서 오늘날 넓은 의미의 디자이너가 주도하는 도시 속의 색채는 환경친화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결국 색은 이른바 정보통신 혁명기의 발광체인 빛의 현란함과 맞물려 더욱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 되고 있다. 분명해보이는 것은 다양한 산업화가 색의 순기능을 극소화하고 그 역기능을 증폭시킨다는 점이다.

일상의 환경문제인 색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

우리는 지금 뒤늦게, 디자인이 살길이고 경쟁력이라고 외치면서, 디자인이라는 또다른 '모호

한' 개념에 기대, 삶의 질을 저울질하고 있다. 색의 선택과 취미는 오랜 삶과 훈련의 결과다. 우리 미술교육에서, 소수의 천재적 작가를 키워내려는 노력 못지 않게, 일반 대중의 안목을 높일 수 있도록 눈을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테면 교복 같은 것도 하나의 걸림돌이다. 획일화된 색상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이 성인이 돼서도 자신의 세상을 찾지 못하는 예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

현재처럼 거칠고 야만적인 색의 정글인 우리의 생활환경을 바꾸려면,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색에 대한 일정한 입장과 취미와 호불호의 판단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미술교육이 달라져야 할 것이고 작가들 또한 미술 그 자체의 핵심적 문제인 색의 '위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디자이너가 생산 현장에서 색의 효용과 영향에 대해 좀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함은 물론이다. 색이 철학자나 물리학자 혹은 예술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가장 예민한 생태학적·심리적 환경의 문제라는 점에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색에 대해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이 이야기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정진국씨는 미술평론가다. 서울대 미대와 파리8대학, 파리1대학원을 졸업했다. 지은 책으로는 《이미지와 디자인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잃어버린 앨범》 《사진이미지의 인과 밖》 등이 있다.